보 도 자 료

(주소) 16488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전화) 031-231-7253 (팩스) 031-278-7035

배포일: 2025. 9. 7. 보도일: 2025. 9. 8.	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2025년 경기문화예술 상생포럼 개최	2	2	www.ggcf.kr	부 서: 직속 정책실 담 당: 김지혜 전 화: 031-231-7254

‘지역의 미래-문화로 살아나는 도시’ 2025년 경기문화예술 상생포럼 개최

▶ 경기문화재단, 2025년 경기문화예술 상생포럼 “지역의 미래-문화로 살아나는 도시” 개최
▶ 국내외 사례로 보는 지역을 살리는 문화예술, 현장의 해법을 나누는 자리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은 오는 9월 17일(수) 오후 2시,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2025년 경기문화예술 상생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경기문화예술 상생포럼’은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킹과 사례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포럼은 ‘지역의 미래-문화로 살아나는 도시’를 주제로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지역소멸 위기에 대해 문화예술을 통해 대응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본다.

첫 번째 발제는 이승태 안성시문화도시센터장이 ‘안성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지속적 순환과 성장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어 도쿄도역사문화재단 아츠카운슬 도쿄 소속 타무라 아사코, 후지시마 아키가 공동으로 ‘도쿄도 다마 지역에서의 예술문화자원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개발이라는 정책과제의 추진방식을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최혜자 문화디자인자리 대표가 ‘경기북부 유휴공간 활용방안’ 발표를 통해서 문화 소외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기북부가 유휴공간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금번 경기문화예술 포럼이 지역소멸과 문화소외라는 큰 과제 앞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을 다시금 환기하고, 지역을 살리는 정책적 상상력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도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정책실(031-231-7254)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포스터